

사회복지사에게 '더 가까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윤리상담소」 「인권상담소」 개소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지난 10월 16일 윤리상담소와 인권상담소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기념식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김성이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정진모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장, 안향림 수원여자대학 교수, 윤리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 위촉, 현판식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 현판식에 앞서 협회 내에 마련된 상담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내빈들.

김성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상담소 개소를 축하하며 “오늘의 새로운 시작을 계기로 상담소의 내실을 기하고자 한다”며 “특히 인권상담소의 경우 상담 변호사 100명 되는 날 사회복지인권네트워크 발대식을 가질 것”이라고 상담소 개소 인사를 대신하였다.

인권상담소 소장인 위촉된 하일호 소장은 “국가적으로 사회복지가 날로 중요해지는 이 시점에서 이런 일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초대소장으로 법률가들이 사회복지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을 업무의 중요 포인트로 생각하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일호 소장은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인권상담소장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우선은 상담역을 맡을 변호사 20명을 확보한 후 네트워크 구축을 하고 권역별로 묶어 전담 상담역 변호사 제도를 시행하고자 한다. 먼저 접근이 용이한 서울시와 경기도를 시작으로 변호사, 사회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사들이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어 기본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한다.


이를 전국단위로, 단계적으로 100여명 정도의 변호사를 확보한다면 전국 1만명의 변호사 중 100명이 사회복지에 대해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본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별 연계 가능한 네트워크를 제시하고 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강화시키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고 싶다.

더 나아가 정기적 세미나와 사회복지분야 법적 측면에서 어떤 의미 갖는지 정책에 대한 역량 구축 입법과제를 발굴하고 입법 과정에 참여해 법안을 제안하는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인권상담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변호사들에게 복지마인드를 심어주어야 하며

이를 통해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어 윤리상담소 소장으로 위촉된 정중우 소장은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윤리상담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정중우 소장은 “윤리, 가치상충, 사생활보호, 비밀보호 등 철학적이고 어려운 것을 다루는 것에 있어 어떤 면에서 본다면

원로분들이 해주어야 할 일을 열과 성을 가지고 윤리 법제위원회에서 담당해오고 있다”며 “온라인 상담창구를 개설해 운영하기도 했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여서 실적이 미미한 것은 사실이다. 어려운 사업이지만 전국의 회원에게 직접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의 사업이라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중우 소장은 “시작하는 일이라 착오가 있고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열심히 해볼 것이다. 그동안 팀워크를 다지는 기간이었다면 앞으로 다져진 팀워크를 발휘해 사회복지 윤리의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현판식을 가진 윤리상담소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http://www.kasw.or.kr>)에 접속한 후 상담을 신청하면 공개 혹은 비공개로 전문 상담위원들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인권상담소는 전국 네트워크 구축 등 사전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인권상담을 시작할 예정이다. 



▲ 하일호 인권상담소장(좌), 정중우 윤리상담소장(우)